2012기후협약 총회 여수 유치 영·호남 시민단체 손 잡았다

여수·남해·하동 등 공조

2012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여수에 유치하기 위해 영·호남시민단체가 손을 잡았다.

여수엑스포시민포럼, 순천 YMCA, 광양YWCA, 고흥 참여연대 등 전남동부권 9개 단체, 남해 광양만어민대책위원회, 하동 재향군인회 등 경남서부권 3개 단체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여수에서 열릴 수 있도록 다함께 유치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여수유치운동본부'를 결성한 이들 단체는 "정부가 덴마크에서 열리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2012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2012여수박람회의 핵심 주제가 '환경(기후)'인 만큼 당사국총회를 여수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여수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만큼 전남동부와 경남서부 전체를 대회장으로 편성해 행사를 치른다면 낙후된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성과도 거둘 수 있다"며 공동유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여수시도 최근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속에서 2012당사국총회 여수 유치를 위한 유치 건의문을 정부 당국에 제출했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이 대통령 코펜하겐 기후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출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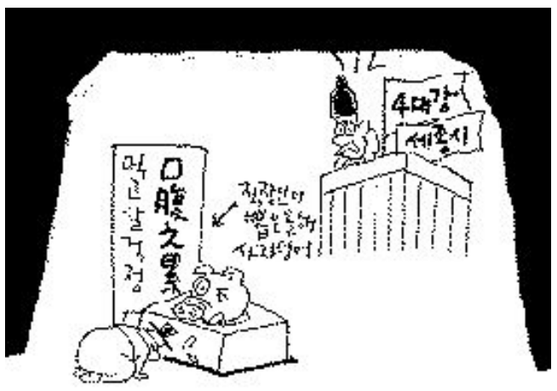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코펜하겐 시내 벨라 센터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기구'의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를 유치해 '포스트(post)-2012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民生에 얼마나 신경을 안썼길래…

문화수도 '光아트거리' 만들자

광주발전전략연구단 6개 분과 최종보고회

LED·디자인 산업도 육성해야

빈약한 광주의 문화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에 '광(光)아트'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광주발전전략연구단'은 16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생산도시·문화도시·생태도시·선진도시·도시기반·시민안전 등 6개 분과의 연구를 결산하는 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문화도시 분과는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산업 연계 활용성 확대방안'에서 광산업 및 부품소재산업과 연계한 공예산업 발전 계획과, 광주 브랜드게임 창작 및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를 문화전당사업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전당 주변에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광아트 거리, 광아트 지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광주시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이 광산업과 문화수도를 접목하자는 취지다.

광산업체에서 생산한 LED조명을 광주지역 게임업체가 개발한 게임콘텐츠를 표현하는 매체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생산도시 분과는 광주디자인센터 인근에 디지털디자인 실용화센터, 디자인파크 등 디자인 인프라 집적화를 통한 디자인 산업을 육성위한 '광역권 디자인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내놓았다.

도시기반 분과위는 전방부지, 마륵, 서창 등 영산강축에 친수 녹색도로를 확보하고 각 생활권까지 녹색코리도 조성 등을 골자로한 '광주시 생태탐방·문화체험벨트 조성방안 연구'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선진복지 분과의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관광디자인 분과의 '창조적 도시브랜드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등도 발표됐다.

한편, 지난 2005년 조직돼 올해 4년차를 맞은 광주발전전략연구단은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해 신규 역점시책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로봇센터 구축 방안' 등 모두 17개 신규사업을 발굴해 광주시 씽크탱크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다. 시는 이날 발표한 연구과제는 책자로 발간·배포해 각 실과 업무추진시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원봉사자 화이팅!"

16일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린 '2009 북구 자원봉사자대회' 수상자들이 참가자들로부터 축하 박수를 받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나주 남파고택'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6일 전남 문화재자료 제153호 '나주 박경중 가옥'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 제263호로 승격 지정하고 '나주 남파고택(羅州 南派古宅)'으로 명명했다.

나주 남파고택은 1884년에 남파 박재규(1857~1931)가 건립하고 1910년대와 1930년대에 개축해 현재 남파 후손인 박경중씨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택으로 남도 지방 상류층 주택의 구조가 비교적 잘 나타나있으며 집안에 각종 살림살이와 공예품이 잘 보존돼 있다.

시대별로 개축한 건물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44개 전문대 69,800명 선발

18일부터 원서접수

광주·전남 17개 전문대를 비롯한 전국 144개 전문대가 정시모집에 들어간다.

모집인원은 전국 6만9천800여명이며, 광주·전남에선 송원대학 913명, 광주보건대학 632명 등 7개 대학에서 3천200여명을, 전남에선 10개 대학에서 3천50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집일정은 18일부터 원서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2월18일까지 대학별로 진행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6일 전국 146개 전문대 중 정시모집을 하지 않는 계원디자인예술대학, 4년제 대학과 통합 추진 중인 인천전문대를 제외한 144개대의 2010학년도 정시모집 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모집인원 감소=144개 대학이 올해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총 6만9천873명으로 지난해(8만5천567명)보다 18.3%(1만5천694명) 감소했다. 일반전형으로 144개 대학이 3만6천574명을,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136개 대학이 1만3천372명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115개 대학이 1만9천927명을 모집한다.

전문대는 2년제와 3년제 학과로 구분되는데, 2년제로는 정원 내 총 모집인원의 66%인 3만2천959명을, 3년제로는 34%인 1만6천987명을 각각 뽑는다. 동일 학과도 대학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로 달리 모집하므로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한다.

◇학생부 비중 높아=주요 전형요소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며 전반적으로 학생부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144개교 중 수능과 학생부 성적으로 선발하는 곳이 103개교로 가장 많고, 학생부만 반영하는 대학이 19개교, 학생부·수능·면접을 모두 반영하는 곳이 9개교다.

◇일정 및 유의사항=18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이 대학별로 실시된다. 추가모집은 내년 2월19일부터 26일까지다. 정시 기간에 전문대간, 전문대와 일반대학(산업대, 교육대 포함)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일반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하더라도 전문대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사관학교 등), 폴리텍대, 전공대학, 각종학교의 경우 복수지원,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cce.or.kr 또는 ipsi.kcce.or.kr)를 참고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함평 나비축제 초등 교과서 실린다

함평군의 나비축제가 전국 공용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실린다.

함평군은 16일 "2010년 3월 새 학기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4학년 국어과목 국정교과서에 함평나비축제가 소개된다"고 밝혔다.

4학년 1학기 국어과 2단원 '정보를 찾아서' 편에 다른 지역 축제들과 함께 실리는 나비축제는 개최 시기, 장소, 개최 목적, 행사 내용 등을 응용한 문제풀이 형식으로 모두 6쪽 분량에 걸쳐 소개된다. 또 나비축제와 관련해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등으로 변화하는 호랑나비의 한살이 과정을 배우는 내용도 곁들여졌다.

지난 1999년 시작해 올해 11회째 행사를 치른 함평나비축제는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체험 축제로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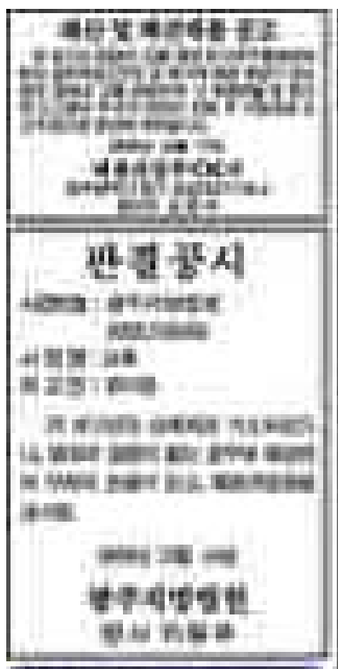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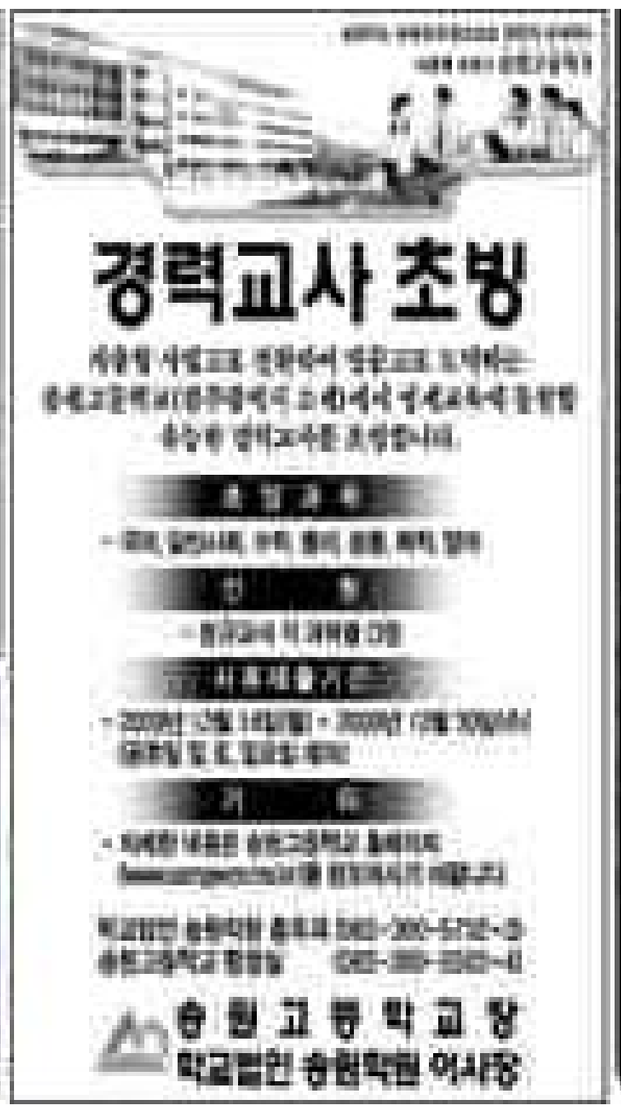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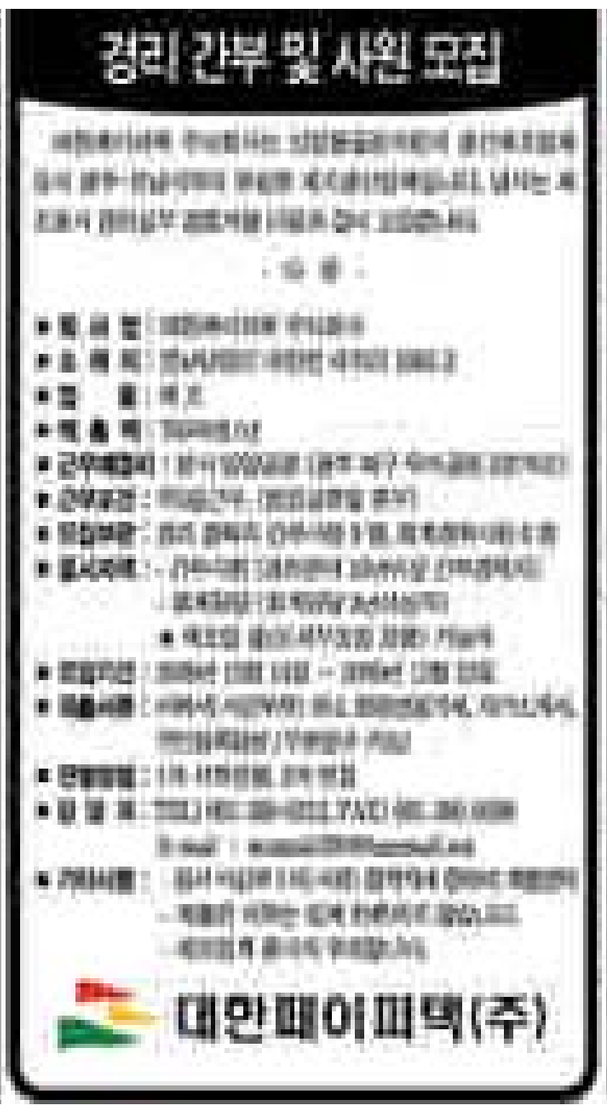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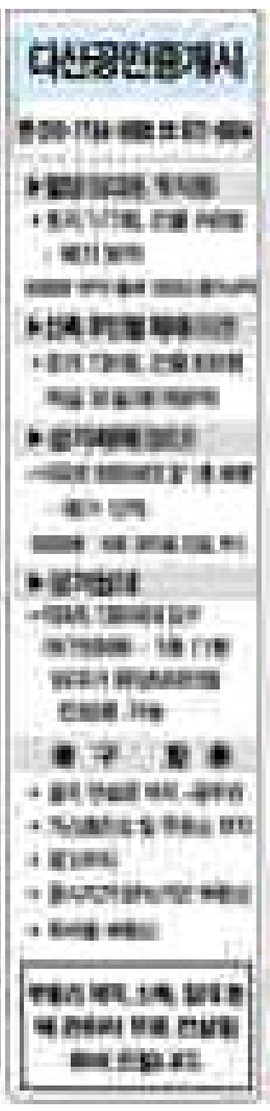
광산 신창·농성 1동 우편번호 조정·신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과 서구 농성1동 등 광주·전남 일부 지역의 우편번호가 조정되거나 신설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30일 우편번호 조정 이후 발생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09년 제4차 우편번호 조정사항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47개 지역을 비롯한 전국 491개 지역과 건물 등의 우편번호가 조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광산구 신창동 화정4동 모아타워가 502-794로 새로 생기는 등 40개 우편번호가 신규로 등록됐으며, 서구 농성1동 등 6개는 변경, 광산구 어룡동 우편번호는 사라지게 된다.

이번 고시로 우편번호 수는 3만676개에서 3만855개로 179개가 늘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